

‘안방 호랑이’에서 ‘무적 호랑이’로 변해야 산다

홈에서 강한 KIA, ‘사직→창원→대구→잠실’ 원정 12연전 돌입

홈 승률 0.592 ‘리그 3위’...원정 승률 0.413 ‘리그 8위’ 대조
적지 득점권 타율 ‘↓’·불펜 ERA 5.94 최하위권, 약점 노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시즌 최대 고비인 원정 12연전에 들어선다.

4일 기준, KIA는 48승 47패 4무로 리그 5위를 달리고 있다.

3위 롯데와는 6경기 차로 벌어져 상위권 진입은 쉽지 않다.

다만, 4위 SSG와 단 1경기 차에 불과하다. 뒷순위 팀들과도 겨우 반 경기차다.

매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표가 요동칠 수 있다. 당장 5일부터 롯데, NC, 삼성, 두산을 상대로 사직, 창원, 대구, 잠실을 차례로 돈다.

문제는 장소다. KIA는 유독 광주를 벗어나면 약했다.

KBO 데이터에 따르면 올 시즌 KIA는 홈에서 29승 20패 2무, 승률 0.592를 기록했다.

리그 전체 3위에 해당하는 상위권 성적이다. 반면 원정에서는 19승 27패 2무, 승률 0.413으로 8위에 머물렀다.

단순한 분위기 문제가 아니다.

타선과 마운드 전반에서 수치상 하락이 뚜렷했다.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 홈 OPS는

0.752, 원정은 0.721로 큰 차이는 없다.

홈런도 홈 47개, 원정 44개로 균형을 이룬다. 문제는 찬스에서 드러났다.

홈 득점권 타율은 0.286으로 리그 6위권.

하지만 원정에선 0.244로 떨어져 9위에 그쳤다. 기회는 꾸준히 있었지만, 점수로 이어지지 않았다.

꾸준한 타자도 일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찬스에서의 집중력이 부족하다.

마운드 역시 원정에서 효율이 떨어졌다.

홈에선 평균자책점(ERA) 3.66, WHIP 1.31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원정에선 ERA 5.14, WHIP 1.55까지 나빠졌다.

불펜은 더욱 심각하다.

ERA 5.94에 달했고, 피안타율 0.288, 피출루율 0.394, 피OPS도 0.836까지 치솟았다.

주요 지표 대부분이 하위권이다.

특히 대구에선 ERA가 12.06으로 리그 최악이다. 사직에서도 피안타율과 WHIP이 모두 높아,

실점 관리에 애를 먹었다.

물론 잠실 등 여타 구장에서 비교적 나은 경기력을 보였다.



이범호 KIA 감독이 지난 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후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그러나 전체적으로 원정에서의 흔들림은 분명한 과제로 남아 있다.

물론 적지에서의 경기력 하락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동 피로와 낮은 환경, 홈 팬 응원 등이 영향을 미친다.

리그 대부분의 팀들이 원정보다 홈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

하지만, KIA의 경우 그 격차가 유독 크다.

장타력은 유지되지만, 찬스 처리와 뒷문 싸움에서 기복이 심하다. 이런 약점을 잡지 못한다면, 반등은 쉽지 않다.

이번 원정 12연전이 중요한 이유다. 버티냐 추락이냐의 갈림길이다.

후반기 최대 고비다. 연패의 수렁에 빠진다면 하위권 추락도 배제할 수 없다.

상위권 추격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반타석이 요구된다.

지금 KIA는 ‘완전체’에 가깝다.

‘간판타자’ 김도영이 두 달 만에 돌아왔고, 선발 올리고 복귀했다.

불안했던 불펜도 새 얼굴들로 보강했다.

전력은 갖춰졌다. 변수는 팀 안에 있다.

이제는 장소도, 부상도 탓할 수 없다.

광주를 떠난 이 12경기.

KIA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시즌의 향방을 결정짓게 된다.

/주홍철 기자

전국 야구 꿈나무들 빛고을서 명승부 펼친다

제2회 대통령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오늘 개막...32개팀 참가 11일간 뜨거운 열전

야구의 도시 광주에서 전국 유소년야구 꿈나무들이 열전을 펼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2회 대통령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가 6일부터 16일까지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지난 대회보다 참가 범위를 더욱 넓혀 전국 각지의 초등 야구 유망주들이 실력을 겨루는 무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2024년 전국초등학교야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26개 팀과 시·도협회 추천을 받은 6개 팀 등 32개 팀이 참가한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화성초, 대성초, 학강초, 수창초, 송정동초, 순천 남산초 등 6개 팀이 참가해 우승을 노린다.

경기는 6일 오전 8시30분 순천 남산초와 충남 온양 온양초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7일 화성초와 대성초(오후 5시), 8일 학강초와 서울 가동초(오후 8시30분), 수창초와 경북 대현초(오후 10시), 9일 송정동초와 경남 양덕초(오후 6시30분)가 각각 1회전 경기를 치른다.



광주 무등야구장 전경

〈광주매일신문 DB〉

특히 대회 기간 유소년 선수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KBO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나지완, 장성호, 안경현이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레슨과 야구 관련 직업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통령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는 전국 초등 야구 발전과 유소년 선수 육성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회의 우승과 개인상 주인공은 16일 폐막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광주체육중 근대5종 이루리 대한체육회장배 3관왕 기염

여중부 3종 개인·단체·릴레이 ‘金’

광주체육중 근대5종 이루리(3년)가 제3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

이루리는 지난 4일 강원 인제 일원에서 열린 대회 여자중등부 3종 릴레이 결승에서 김서현(2년)·양보민(3년)과 함께 팀을 이뤄 총점 642점(수영 248점 1위·레이저런(사격+육상) 394점 1위)으로 세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루리는 앞서 열린 여자중등부 3종 개인전과 양보민·김서현·한다예(2년)와 호흡을 맞춘 여자중등부 3종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시청 윤상민과 성진수, 방준서는 남자일반부 4종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합작했다.

윤상민·성진수·방준서는 남자일반부 4종 단체전에서 수영(886점 2위)과 펜싱(654점 2위), 레이저런(1751점 2위)을 합쳐 총 3천271점으로 인천체육회(총 3천418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제3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서 여자중등부 3관왕을 차지한 이루리.

〈광주근대5종연맹 제공〉

송학도건 조하은은 여자일반부 4종 개인전에서 1천28점(수영 254점 9위·펜싱 226점 1위·레이저런 548점 3위)으로 은메달, 서지영과 함께 된 여자일반부 4종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희중 기자

LPGA 국가대항전에 김효주·유해란·고진영·최혜진 출전

오는 10월 김효주·유해란·고진영·최혜진이 국가대항전 형식으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AIG 여자 오픈을 마친 직후 5일 발표된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8개국 출전 선수 32명을 확정했다.

김효주(세계랭킹 8위), 유해란(9위), 고진영(16위), 최혜진(23위)은 한국 선수 가운데 세계랭킹 1~4번째에 올라서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나서게 됐다.

AIG 여자 오픈에서 공동 4위를 차지한 김아림은 세계랭킹을 12계단이나 끌어 올렸지만, 최혜진을 추월하지는 못해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 출전은 2년 뒤에야 노릴 수 있게 됐다.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출전하는 김효주·유해란·고진영·최혜진.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 조직위 제공〉

이번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에는 올해 치러진 5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자 전원, 그리고 세계랭킹 10위 이내 선수 전원이 출전하게 됐다.

2년마다 열리는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뉴코리아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광주시장애인체육 제2기 발전위원회 국제대회 출전 보치아 선수 참가비 지원

광주시장애인체육 제2기 발전위원회(위원장 정선교 (주)대명외식산업 대표이사)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보치아 선수 2명에게 참가비 3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5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정형렬 제2기 발전위원회 추진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대회 참가비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

지원 대상 선수는 한국알프스스포츠 광주장애인보치아연맹 문찬국(스포츠통급-BC1), 나미숙(스포츠통급-BC4)이다.

문찬국은 지난해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인전과 단체전 동메달리스트이며, 나미숙은 개인전 금메달리스트로 현재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다.



이번 지원금은 두 선수가 출전 예정인 2025 월드 보치아 챔피언즈 대회(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참가를 위한 경비로 사용된다.

/박희중 기자